

# 우병우 또 기각... 대선주자들 검찰 비판

문재인, "수사의지에 의구심"  
안철수 "검찰총장 사퇴해야"  
홍준표 "수사를 잘 못했죠"  
유승민 "영장제청구 노력해야"  
심상정, "의도적 의심된다"

대선 주자들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검찰에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했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법 상식을 외면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의지에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정농단 사익 부패 권력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동아일보 이코노미 서밋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실망스럽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검찰 수사에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부실하게 청구한 것이 아닌가는 여러 가지 의혹 있다"며 "책임지고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행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홍 후보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



투표하는 주민 12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 고사면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기초의원(완주 라 선거구)을 뽑는 투표를 하고 있다.

원의 판단"이라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잘 못했죠.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영장이 기각될 리가 없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 영천 공설시장을 찾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도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다소 말을 아꼈다. 대신 유 후보는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증거를 찾아 새로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할 게 아니라 영장 재청구를 위한 노력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도 브리핑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우 전 수석

에게 죄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있긴 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당연히 적용해야 할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무능보다 오히려 의도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해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뉴스

## "안철수 부인, '1+1 특혜채용' 문서 확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당시 채용계획 수립 전에 채용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교수가 안 후보와 함께 '1+1' 특혜 채용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들은 "안 후보가 지원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3월18일, 배우자인 김 교수가 지원한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19일에 각각 수립됐다"며 "그런데 김 교수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특별채용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3월30일에 이미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 수여 증명서 발급일자를 보면, 역시 특별채용 계획 수립 이전인 각각 3월22일과 23일"이라며 "그것도 안 후보의 서류 발급 일자와 동일하다. 안 후보의 서울대 채용 결정 당시 배우자인 김 교수의 채용 또한 결정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종인, 빅텐트 결국 철거... 불출마

빅텐트, 제3지대 등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종인 전 의원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저의 호소는 늦게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했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합정부를 구성해 목전에 다가온 국가 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대선 후보로서의 노력은 오늘로 멈추겠다"며 "그러나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서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이 역량 있는 후보가 앞장서 실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난 15년간 이 나라를 패권적으로 운영해온 소수의 책임자들을 제외하곤 모두 힘을 합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 그런 국민의 마음이 반영된 여론이 조성돼가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비극이 지난 6개월간 온 나라를 멈춰 세웠다"며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후보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갈등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사회 갈등의 위기에 빠졌고, 이 위기는 나라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며 "이 통합정부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새 대통령이 돼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비문연대, 개헌, 경제민주화 등을 화두로 한 빅텐트는 결국 철거됐다. 이번 대선은 대文과 安의 승부로 결정날 전망이다.

대선 구도에 새 판을 짤 것으로 기대됐던 김종인 전 대표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주목된다.

자신이 기존에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문재인 측으로 돌아갈지, 한때 자신이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옮겨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재용 기자

## 민주, 경선 불법동원 조사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당 불법경선의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윤관석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 경선 불법동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사실을 전했다.

위원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맡게 됐다. 안행위원들은 국회 인행위원, 법사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전방이다.

윤 단장은 "최근 국민의당 불법 경선의 실체와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다. 어제는 전북의 한 대학에서 약 200명의 학생이 불법 동원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불법동원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선관위는 즉각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느낌보 수사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당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 선관위, 경선 동원 의혹 원대 출신 국민의당 당원 조사

### 학생 동원 참여 2~3명도... 졸업생과 후배들과의 유대 관계로 인한 행동인 듯

국민의당 광주·전남 국민참여 경선에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대선후보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 원광대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 제기에 광주광역시선관위 조사관들이 익산 지역 국민의당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광주선관위는 4~5명의 조사관을 익산선관위로 파견해 학생 동원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원광대 출신 국민의당 당원 김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원광대 총학생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 관계를 맺었던

후배들을 통해 학생을 동원해 경선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광주선관위 조사관들은 김씨를 포함해 학생 동원에 참여한 2~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선관위는 학생 동원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가 필요할 경우 원광대 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광주선관위에서 조사팀을 보내와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원 의혹을 인지한 광주선관위에서 모든 조사를 하고 있어 정확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원광대 역시 국민의당 경선에 학생이 동

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 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학교와 학과, 교수 등의 주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졸업생과 후배들과의 유대 관계로 인한 행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광대 관계자는 "학교와 교수 등이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참여 신청서를 받아 경선에 갔다는 소리가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학생 200여명은 지난달 25일 6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후보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n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무주시  
주관: 무주시체육회, 무주태권도원  
후원: 한국태권도진흥재단, KFA, KPNP, 전북은행, Kwangju Bank, JBwoori Capital, ASIANA AIRLINES